

# 관광경제 활성화 · 주민편익 사업 추진 '맞손'

### 전주시 · 완주군 상생협력사업 5차 협약... 에프투어(F-Tour) 추진 · 자전거 도로 확충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월 4차 협약 후 한 달만에 3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4일 벚꽃이 만개한 완주군 대한민국 스테미엄 박물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5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먼저 '에프투어(F-Tour) 연계 전·완주 상생협력사업'이다. 전·완주의 대표적 음식과 전통특산물(food), 관광체험자원(foot), 축제자원(festival), 농촌체험자원(farm) 등을 활용·연계한 협력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력사업은 △(Food) 전·완주 음식체험 및 미식부여 프로그램 운영 △(Foot) 발품 여행매거진 트립플을 통한 테마형 발품부여 콘텐츠 공동 운영 △(Festival) 전·완주 간 축제 통합 합비스 운영 등 공동 축제(완·전축제) 운영 △(Farm) 전·완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거점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투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시와 완주의 관광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는 '완주-전주 자전거 도로 확충' 협력사업이다. 완주-전주 경계



4일 완주군 대한민국 스테미엄박물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5차 협약식'을 갖고 있다.

지역 및 연결 공동구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만경강에서 전주천까지 끊김 없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최근 전·완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협력' 사업이다. 전·완주 주민들의 이동권 보강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벽·오지 지역의 효율적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국토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모사업에도

양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완주의 공동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면서 상생의 길이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당초 지향했던 것처럼 양 지역주민의 생활이 계속 나아지고 전주시와 완주가 동반 성장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더욱 발전시키자"고 덧붙였다.

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전·완주 5차 상생협약을 통해 교통, 문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군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양 시군 주민들의 생활에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도 내실있게 관리함으로써 양 지역주민 편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5차 상생협력사업이 봄을 맞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채워져 의미를 더한다. 전·완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더 풍부하게 전주시와 완주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전·완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양 지역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 분야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처음 다루게 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양 지역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전주시와 완주시가 언제나 반기는 친구를 맞이하듯 지속적으로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을 이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전북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 창의 관광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 기업 20개사 선별

### 기업당 최대 3000만원 ·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24일까지 '2023년 전북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 센터에 따르면 전북민의 매력을 살린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 분야 및 최종 순위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센터 내 사무 공간, 회의실, 강의실 활용이 가능하며, 관광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투자유치 연계사업,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전북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분야는 △예비(예비) 및 재창업자, △초기(창업 3년 이내), △성장(지역혁신/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성장(지역상생/타 지역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관광스타트업으로 4개 분야 중 한 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중 지역상생 관광스타트업의 경우 도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센터는 1차 서류 및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해 사업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업모델 및 성장전략, 지속성 및 발전 기여도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sw123@jt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 내년 착공 · 2026년 완공 목표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달 31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확정된 뒤, 다음 날인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3월 27일 재공고했고, 오는 4월 7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해당 용역은 기초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도와 재단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건축계획, 국제금융센터의 관리 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도민의 특색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 자산 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민방위 대피 급수시설 특별 점검

국내의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자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대피시설과 급수 시설, 민방위 창고 등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되는 대피·급수시설 계획의 적절성 △대피시설 내·외부 관리상태 등의 상시 사용 가능 여부와 활용도 및 면적·높이 등 대피시설의 적정 여부 △급수시설의 비상 발전기, 음수대, 펌프 시험, 수압 상태, 급수 차량 진입 등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의 보관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김재훈 기자

### 본사 인사

▲이중복 원주주재 기자 명 : 의원면직

○월 31일자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성황

### 1천여 취업준비생 참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강의 · 전문면접관 모의면접 등 진행

도내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넓히기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4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돼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력 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개 지역기관이 참여하고 1,000여명의 지역인재들도 함께했다.

올해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개최된 이후 4년만에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대면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으며, 지역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여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설명회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양오봉 전북대총장,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인재를 위한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했다.

이어서 전북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2023년 채용계획 안내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지역인재로 취업한 4개 공공기관 선배들이 참여해 생생한 취업 사례와 취업 준비 방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공기관 취업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강의, 한국국토

정보공사 인사부서 면접관이 직접 참여한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연계 실무교육 프로그램 온오프캠퍼스 △면접시 맞춤형 메이크업 및 복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은 청년이다"며 "전북도는 최근 선정된 RIS(자자체-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청년인재를 키우고, 동시에 채용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전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